

'이익 의지'가 언쟁에서 진실 외면



원효의 해안-화쟁(1)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갈등 문제는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지만 성과는 미비하다.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은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10월 17일 '국회인문학아카데미'에서 '화쟁'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그는 인간의 다름과 갈등에는 언어가 기저에 있음을 분석하고 이점을 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화쟁'을 제시한다. 그의 원고를 미리 받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1. 싸우는 존재

지구상의 생물들은 경쟁한다. 살아남기 위해, 종족을 유지하고 복제하기 위해 경쟁한다. 특히 동물은 동종(同種) 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운다. 그러나 동물의 다름은 생존과 번식이 필요한 일차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친다. 그에 비해 인간의 경쟁과 다름은 특이하다. 채워야 할 욕구의 내용과 범위는 끝없이 확장되기에, 경쟁과 다름도 끝을 모른다. 잔인성과 폭력성도 끝을 드러내지 않는다. 기억을 계승하며 싸움의 기간을 무한히 연장하기도 한다. 혈통이나 지역, 종교나 신념의 차이를 두고, 언쟁든지, 얼마든지, 기꺼이 피의 강물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싸움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싸우는 존재'이다.

'싸우는 인간'의 면모에는 언어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욕구의 무한증식과 싸움의 무제한성은 인간의 언어능력이 심층에서부터 개입하고 있다. 인간의 등장이란 언어에 앞섰지만, 현실의 인간은 언어와 선후를 가르기 어렵게 한 몸이 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욕구하거나 생각할 때, 이미 그 욕구의 형성과 생각의 발생에는 선행하는 언어적 개념이 개입한다. 언어적 개념과 무관한 순수사유나 순수욕망은 알려지지 않게 된 것이 현존 인간의 실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로 싸우는' 존재다. 언어로 싸울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다. 인간의 싸움은 관점과 욕구를 담은 언어들의 각축이다. 언어의 승패가 곧 현실과 삶의 승패가 되고, 언어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공감이나 연민 같은 생명 본래의 감성은 한순간에 내팽개친다.

2. 언어의 양달과 응달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드는 존재로 진화한 이후에도, 인간은 한 동안 표정이나 몸짓, 음성으로 의사를 교환했을 것이다. 흥음과 실음, 위협과 안전을 알리는 단순한 발생단계로부터, 의미를 복잡하게 분절하는 개념적 언어를 구사하는 단계로 진화하다가, 급기야 그 개념 구사력이 문자라는 고도의 유형적 기호 조작능력과 결합

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진정한 '언어 인간'의 시대가 개막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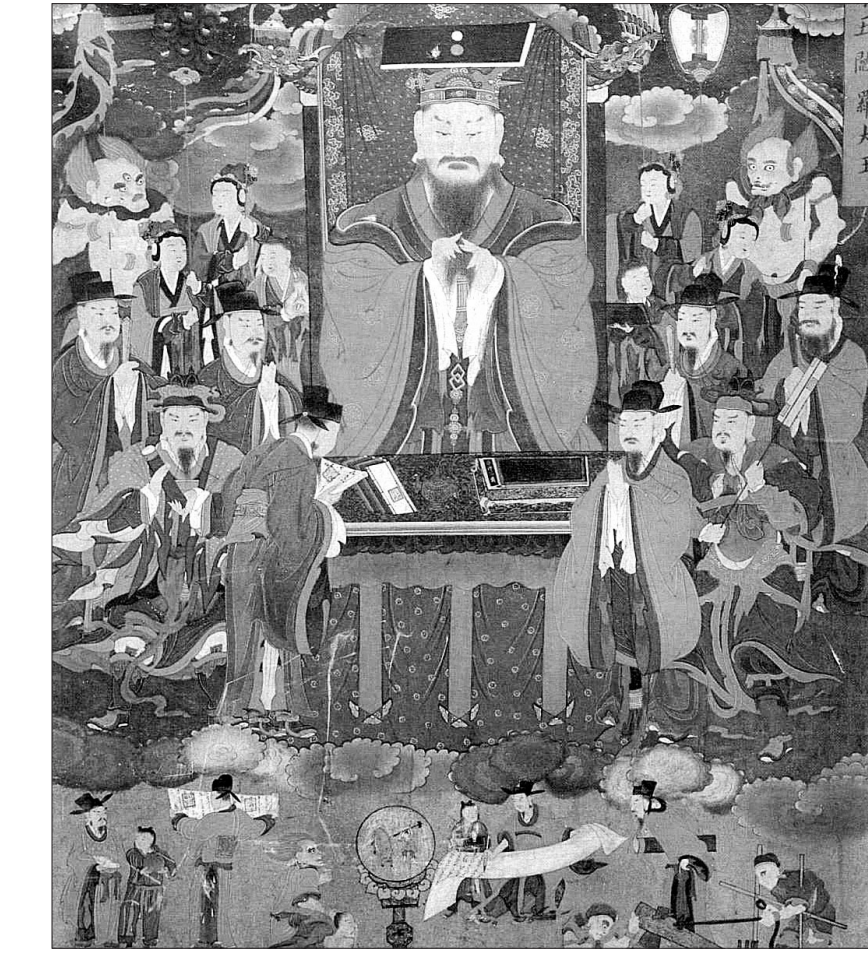
인류가 영성의 원천으로 삼은 고전 지혜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대략 지금부터 약 2550년 전(B.C 6세기) 무렵의 일이다. 이 시기에 각 문명권에서는 심오한 해안을 지닌 인물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등장하는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불교권 국가들의 합의된 산정방식에 따르면, 붓다(Buddha)는 기원전 624년에 출생하여 80년을 살다가 기원전 544년에 삶을 마감하였다.

노자(老子, 기원전 6세기경)나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의 활동시기도 거의 겹친다. 기원전 5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기원전 470년경), 기원전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장자(莊子)까지 고려하면,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한 100~200년간은 동·서양 보편지혜의 원천들이 앞 다투어 지혜의 감마수를 흘리기 시작한 각별한 시대이다.

칼 야스퍼스(1883~1969)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를 제1차 '지식의 폭발'이 일어난 '축(軸)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인류 정신사의 중심축이 형성되어 구르기 시작한 시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축의 시대 중에서도 기원전 6세기 즈음은 가히 중심에 해당한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 영성들이 구사한 언어의 수준이다. 개념 선택, 명제 설정, 분석과 추론, 상징과 비유, 의미지평 등에 있어서 그들의 언어능력이 보여주는 수준은 '언어적 인간'의 고도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현재 구사하는 언어능력은 기본적으로 그 시기 그들이 보여준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 5-6천 년 전에 문자언어와 결합하기 시작한 인간의 언어능력이, 그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나서는 현재 우리가 구사하는 정도의 고도 언어능력을 보여주는 수준에 이미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기의 인간은, '사유와 욕구가 언어와 한 몸처럼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길', '언어의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길', 그리



염라대왕이 주관하는 발설지옥을 묘사한 시왕도. 발설지옥은 구원을 심판하는 곳이다. 언어로 인한 갈등이 문제라는 것은 오래 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고 '언어로 싸우는 길'에 올라, 거침없이 질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만-미개-문명'이라는 부실한 시대 구분 도식에 맞추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사람들의 언어능력을 '문명 이전의 미개수준'으로 추정하는 통념은 근거 없는 무지의 자만이다. 2500년 전의 해안이 펼쳐놓은 언어들은 현재언어가 아직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가죽 구모이건 대가죽 구모이건 군집 생활을 선택한 인간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방어하고 싸워야 할 상황에 노출된다. 그럴 때는 구성원들의 결집력이 강할수록 유리하다. 소속 집단의 구성원들을 묶는 힘은 '동일성'에서, 대적해야 할 상대에 대한 전투력은 '배타성'에서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매우 효과적이다. 개념과 그에 의거한 언어는 동일성과 차이성을 명백히 구획함으로써 분류와 비교,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개념 언어의 이러한 속성은 생존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 예컨대 일정한 혈연이나 지연, 국가나 민족을 언어로 지칭함으로써, 방어와 공격의 동력인 '같은데 대한 동일성'과 '차이에 대한 배타성'을 명백히 확보할 수 있다.

생존 이익을 위한 또 하나의 언어적 전략은 평가의 견해를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비판단이 언어적 선악평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견해 수

립은 진실을 온전히 포착하고 구현하기 위한 진리 의지에 의거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소속 집단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이익 의지가 판단과 평가를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진실에 반하더라도 이익 확보에 유효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려는 이익 의지가 일상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의의 사도이고 저들은 악의 무리들이다'라는 견해를 무오류의 절대 진리로 수용할수록, 집단의 결집력과 전투력은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익 의지가 지배하는 판단의 견해는 무조건적·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하려는 충동이 수반된다. 만약 '우리는 선이고 정의, 저들은 악이고 불의'라는 견해를 조건적·상대적으로 수용한다면, 이익을 관찰하기 위한 집단 결집력과 배타의 전투력은 원천에서부터 희석되고 만다. 조건적·상대적 이해가 사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지만, 이익 의지는 진실과 합리성을 얼마든지 외면한다.

박태원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효, 선(禪), 니카야 대장경을 실증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그 성과를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학문적 성과로 제2회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주고받는 인사도 시대에 따라

내가 그 누구의 것일 수 없듯

우리말 표현에 '운다'는 말과 '조금'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 역사 5000년에 외침이 430여 차례에 이를 정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우선 '운다' 먼저 살펴보자. 종(鐘)이 운다, 새가 운다, 바람이 운다 등등. 종이 울리고 새가 노래하고 바람소리가 세차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한이 많은 우리네 민족의 귀에는 '운다'로 들려왔을 테니까.

다음은 '조금'에 대해서다 식당에서는, '밥 좀 주세요'를, 약국에서는, '약 좀 주세요'를 즐겨 쓴다. 밥은 조금 줄 수 있지만(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약은 조금 줄 수 없을 터이다. 그런 데도 외침이 찾아 먹을거리 문화가 좋아질 수밖에 없던 가난한 생활에서는 조금이라는 체면치레가 품위를 지켜왔던 것이다.

요즘은 인사말이 달라지고 있지만 저 자거나나 고상길에서 동네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별고 없으십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주고받는

어느 노 교수가 있었다. 정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부부싸움이 잦았던 모양이다. 교단에서 있을 때와, 아내와 치사하고 대수롭지 못한 일로 싸우는 자신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타인(他人)이었다.

그날도 노 교수는 아내와의 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는 뒷동산의 숲길을 거닐고 있었다. 바람에 우수수 솔잎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무심결에 솔잎을 한 움큼 쥐고 같은 모양새의 솔잎을 찾고 있었다. 그냥 걸음으로 스쳐보기엔 모두 다 같은 솔잎이었는데, 꼼꼼히 살펴보니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 길이기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천차만별의 각기 다른 솔잎이었다.

노 교수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 속에 생활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솔잎이 그 러러거늘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본래 같은 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여자와 여자 사이에도 닮은꼴은 모르나 절대 같은 것은 없는 일이다.

생활 언어를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역지사지, 배려하면 싸움 일 없다

인사말이었다. 전쟁과 굶주림이 상존(常存)했던 민족 간에는 밤새 안부가 궁금했고 고까니 걱정이 앞섰던 게 분명하다.

'국물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 싸움질하며 자주 사용했던 상대방의 기를 꺾고 으름장 놓을 때 쓰던 말이다. 손님이 오면 국식을 꾸어서라도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대접한다. 굶주린 아이들은 문뜩 통통 손님이 밥과 국을 조금이라도 남기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밥과 국을 송두리째 팔고 먹어치우면 아이들 입에서는 저절로 '국물도 없구나.'라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여 국물도 없다는 말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자리매김 했던 것이다.

요즘은 '종이 울린다.', '새가 노래한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등으로 표현이 사실적이고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부정적인 거부 보다 긍정적인 신뢰가 세상살이에 약이 되고 도움이 된다. 예전엔 배부른 게 꿈이었지만 요즘은 배부른 게 탈이 되는 세상이다.

주고받는 인사말과 생활의 언어도, 이제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나의 것이 송두리째 되어야 한다. 이 얼토당토 않는 논리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십계명이다.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대서는 안 된다는 역지는 부부싸움의 단골메뉴이자 되풀이되는 레퍼토리(Repertory)이다.

내가 그럴 수 있듯 당신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감싸준다면 그는 현대판 예수이자 부처이다. 내가 한번쯤 궤도를 이탈해 방황할 수 있듯, 당신도 이탈과 방황이 있을 수 있다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네스북(Guinness Book)에 이름을 올릴 최초, 최고의 으뜸 반려자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지만 가장 먼 당신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정신적으로는 남남인 사람들이 주변에는 띄엄띄엄 있는 듯하다. 부부 인연,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싸움 일도 줄어들 것이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일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될 수 없을 테니까. 부부는 서로 마추보고 있을 때는 영원한 섬인 까닭이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iban

니만의 원신세계 기iban

어릴때 10분 저녁에 10분 수련만 기iban

심플한데까지 정열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만지 기iban

종신 신앙과 만년 안정한 내외의 만년만 기iban

www.hyunbulshop.com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쪽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쑥양초 선물세트 6P

밀납초 선물세트 6P

향초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동점]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